

“민주시민교육으로 인성·도덕성 길러야”

전북교육정책연구소 민주교육실태 조사 결과, 도내 초중고 교사들 응답자 68.6% 필요성 주장

전북도내 초중고 교사들은 학생들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인성과 도덕성을 키우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육정책연구소의 일선교사 대상 조사 결과다.

전북교육정책연구소(소장 전윤석)가 지난해 11월 도내 초중고 교사 1,127명에 대한 민주교육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8.6%(774명)가 학생들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민주시민교육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도 70.1%가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에 적합한 민주시민교육 방식을 묻는 질문에는 △학부모와 속에서 이뤄지는 교육 40.9%(482명) △다른 교과와 연계한 시민교육 28.3%(337명) △지역공동체와 협력한 시민교육 22%(267명) △하러의 교과로 시민교육 8.6%(103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이 개발한 '너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재를 일선 학교에 보급해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 내용의 우선 순위에 대해서는 △인성 및 도덕성(23.2%)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 이해(21.8) △타인에 대한 배려와 소통능력(14.9%)이 비슷한 순위로 나왔다. 또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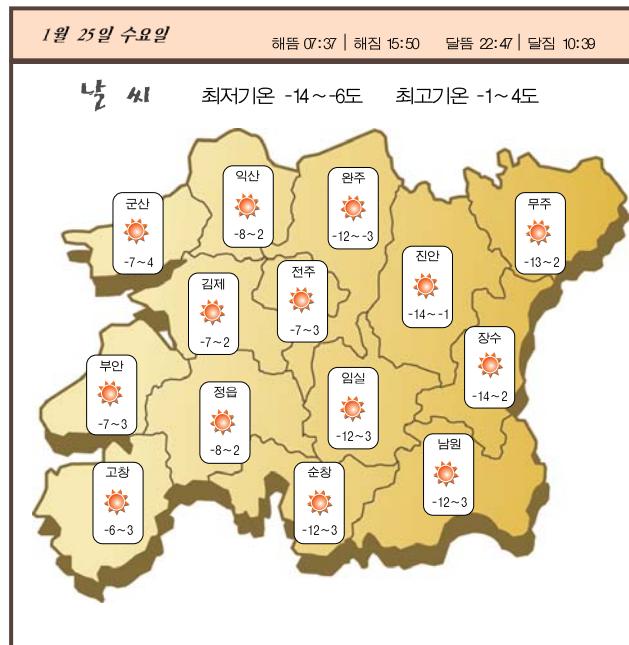


농촌지도자 전주시연합회 이웃사랑 쌀 기증식 24일 농촌지도자전주시연합회 김종철 회장을 비롯한 회원 300여명이 전주시청 시장실을 방문해 생활이 어려운 소외된 이웃들의 따뜻한 명절나기를 위한 420만원 상당의 백미 210포대(10kg)를 김승수 전주시장에게 전달했다.

해(10.8%), 법과 규칙의 준수(9.8%),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5.7%), 인권 존중(5.4%),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3.4%)도 눈에 띈다.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고 있는지는 질문에는 77.8%(877명)가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중고교보다는 초등학교 교사가 교직 경력이 많을수록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사회·도덕교과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은 초등학교(3.87점/5점 만점), 중학교(3.84점)가 유사하게 나타났고, 고등학교는 3.67점

으로 낮았다. 전북교육정책연구소는 이와 관련, 민주시민교육 지침서를 개발하고 교사 연수, 다른 시민교육과 연계, 학교 민주시민교육 총괄부서 등을 활성화 과제로 제시했다. /정해은기자



2017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특수학교 임용후보 선정경쟁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전북교육청은 24일 오전 2017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최종합격자 199명 명단을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www.jbe.go.kr)에 발표했다.

이번 제2차 시험에서는 유치원 53명(일반 52명, 장애 1명), 초등 177명, 특수(유치원) 일반 3명, 특수(초등) 15명(일반 14명, 장애 1명) 총 248명이 응시하여 유치원 35명(일반 34명, 장애 1명), 초등 일반 152명, 특수(유치원) 일반 2명, 특수(초등) 10명(일반 9명, 장애 1명) 총 199명이 최종 합격했다.

개인별 성적은 전라북도교육청 온라인 채용시스템(http://educareit.jbe.go.kr)에서만 조회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합격자를 대상으로 내달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전라북도교육연수원 또는 전북유아교육진흥원에서 신규교사 임용예정자 직무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신규교사로 임용할 예정이다. /정해은기자

‘설 연휴기간 응급진료 걱정마세요’

전주시, 27~30일까지 응급의료기관·약국 등 비상 진료체계 구축

전주시가 설 연휴기간에도 시민들의 건강을 빈틈없이 돌보기로 했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는 설 명절 연휴기간 중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고 시민들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소와 응급의료기관 병의원 및 약국 등 총 428개소를 당직 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약국으로 지정하는 등 비상 진료체계를 구축했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설 명절 연휴기간인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보건소 내에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이 설치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9(보건복지콜센터) 등과 연계해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곳에서는 시민들과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응급진료 의료기관 및 상황에 대한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설 연휴기간 중 당직 병·의원 및 휴일지킴이약국 현황은 전주시청 및 양 구청, 전주시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당직 병·의원과 휴일지킴이약국 현황을 즉시 검색할 수 있다. 특히 응급환자 발생 시에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또는 129(보건복지콜센터)로 전화하면 24시간 즉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보건소는 인구가 늘고 해외여행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감염병 환자(의심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고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4시간 비상방역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감염병 발생감시의 대응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김경숙 전주시보건소장은 “건강하고 즐거운 설 연휴를 보내기 위해 의하고 음식을 익혀 섭취하며 겨울철에도 손 씻기를 자주하는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시민의 건강을 위해 설 연휴기간 비상근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재기자

전주시 도서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도서대출 2배로 확대 운영

전주시는 도서관 이용 활성화와 시민들의 독서 장려를 위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도서대출 서비스를 두 배로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 7월부터 운영된 ‘두배로 데이’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도서관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대출가능권수가 기존 1인 5권에서 2배 늘어난 10권까지 빌려볼 수 있는 서비스다. 대출확대 서비스는 전주시 11개 도서관에서 모두 시행되며, 올해 개관 시간 연장 국가공모 사업에 선정된 완산·송천·아중·쪽구름 4개 도서관은 밤 10시까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전주시립도서관 관계자는 “문화가 있는 날에 실시하는 도서관 대출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도서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며 “책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 만큼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재기자

도교육청, 전북 특수교육 설명회 개최

올해 전북 특수교육 설명회가 24일 지방행정연수원에서 특수교육 관련 교사 및 담당 장학사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설명회는 손원원 장학관의 올해 특수교육계획에 대한 설명에 이어 김승환 전북교육감 격려사와 조벽 교수의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2부 시제발표와 열린토론 시간에는 총 6개 과정이 마련됐으며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담당 장학사 과정으로 나누어 특수교육 운영사례 및 분임토의가 열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특수교육 정책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전북 특수교육 운영계획 설명회가 마련됐다”며 “올해 전북 특수교육의 방향은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통한 장애학생의 학습권 교육권 향상과 특수학교(급) 교원의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성 확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지원 체계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정해은기자

부안으로 마실 오세요

주소: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67, 202호

만복건설 주식회사 임직원 일동

扶來滿福